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아보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구약성경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한 자를 멸시하는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웃시야 왕이 죽은 이후(주전 740년 무렵)에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으로 변하였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재를 무릅쓰고 뉘우쳐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나라를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실 거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망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막상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이런 고난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큰 고난은 미리 막아주시고 그냥 아무 일 없듯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십니다. 끌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40:31).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지난(至難)한 길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 피난길이 도리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달음박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상황을 보며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절망적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가 일으켜 세워지고 주저앉는 자가 독수리의 날개처럼 차오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때는 인생이 잘나가는 때가 아니고, 오히려 심판 중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인생의 고난 중에 여전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오직 그분의 잔잔한 위로를 고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련과 절망 중에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텍스트와 콘텍스트

절박함으로 시작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김성진 담임목사

본문의 배경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에서 아픈 광인을 고쳐주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배 타고 돌아오십니다. 그 시간에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이는 그 지역의 회당장인 아이로였습니다. 그의 열두 살 된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간곡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계속’ ‘지속해서’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때에 이 아이로가 예수 앞으로 나가서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지역 회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행동은 유대인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아이로로 하여금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절박함이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아버지 아이로에게 체면, 권세, 명예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발걸음을 아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혈루병여인

그런데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아이로의 급한 발걸음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절박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정도로 말하면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로의 딸이 더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급하니까 아이로의 딸을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료상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이로의 집에 가던 중 이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역시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 재산도 탕진했습니다. 이때 여인이 붙잡은 마지막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나음을 얻으리라고 믿은 그녀는 실제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육신의 질병이 나았으니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며 숨어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 더 용기 내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막5:34).

“ 병으로 죽어가는 딸의 치유를 위해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예수 앞에 간곡히 엎드린 아이로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며
소망과 재산을 탕진하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혈루병 여인의 치유를 통해
죽은 딸의 살아남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르치신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절박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

아이로

그 격려의 말씀을 하실 때에 아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이로의 딸이 죽을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혈루병 여인에게 방금 하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5:34)는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아이로에게도 말씀하시는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금,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혈루병 여인이 받았던 위로와 격려가 아이로에게도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로는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느라 시간을 허비하신 예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지체하게 만든 여인을 탓하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도 아이로처럼 주님께 엎드려서, 간절함을 가지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에도 예수님은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아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상황이 이전보다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막 5:21-43)

예수님은 일부의 제자들과 아이로를 데리고 아이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미 사람들은 장례를 준비하며 곡하는 자들이 소리를 내어 딸의 죽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소녀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소녀여 일어나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명령에 소녀는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먼저 가서, 죽기 전에 치유하지 않았을까요? 왜 마음 급한 아이로를 길가에 세워놓고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처음 바닷가에서 아이로를 보셨을 때 아이로의 마음의 큰 결단과 절박함을 보시고 그가 기대한 것 이상을 주시기로 이미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과 아이로 딸의 두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로의 이름은 그의 직책과 함께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름과 배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두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이로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아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겪게 하신 ‘현장학습’이었던 것입니다.

굳이 순서를 역행하시면서 아이로 앞에서 이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이제 곧 들려오는 딸의 죽음 소리 앞에서, 그 여인의 고침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아이로에게 체험학습을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열두 해’를 살다가 죽은 소녀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아이로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이로가 예수님께 간구한 것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이로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죽은’ 딸을 살려주어서 그의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증거를 도장처럼 찍어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맺음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열두 해를 고생하던 혈루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한 번의 치유를 넘어서, 열두 해를 살다가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이미 소망 없다는 그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기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번, 이번이 이 고비만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며 옷자락 한 번 만져서 치유받는 이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영원히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주님은 지금도 예비하고 행하고 계십니다.

이 기적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죽은 딸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과 같은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

청년부섬김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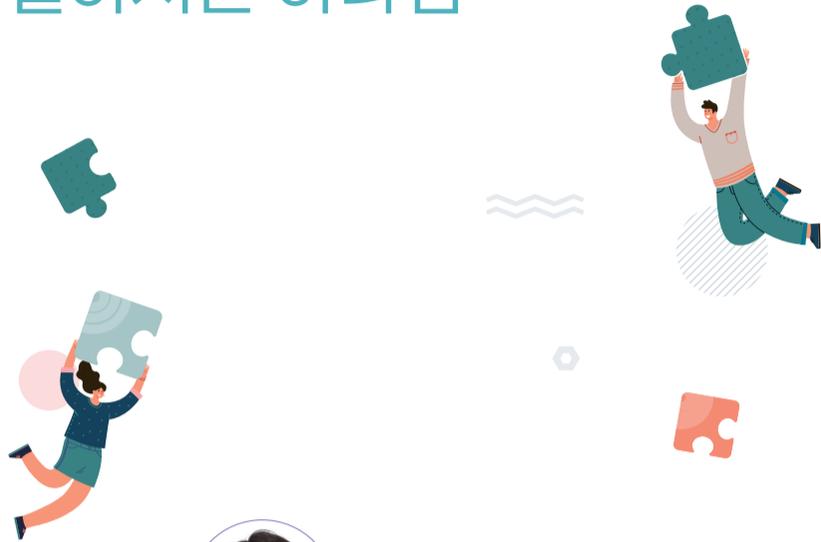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2-3).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한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란 단지 목소리를 크게 내지르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청하신 이유는 예레미야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라는 배는 현실이라는 파도 위에서 출렁이며 의심과 불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청년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자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욱 힘써 기도하고자 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



교역자

- 박철웅 목사**
총괄, 목양 3국
- 명성인 목사**
목양 2국
- 김현희 전도사**
목양 4국
- 김진산 강도사**
목양 1국

간사

- 이혜연 간사**
찬양팀

목양 1국	목양 2국	목양 3국	목양 4국
목양국장 이혜연	목양국장 배지우	목양국장 이소연	목양국장 조희선
목양팀장 김요셉 여요한 성윤하 김준성	목양팀장 박형민 석은비 주영광 김나연	목양팀장 이안나 김선헬 신희리원	기능팀장 한수연
기능팀장 나예선 변윤하	기능팀장 김찬영 권오영	기능팀장 최해진 황애선	새가족국 행정 경하빈 회계 김정은 조장 김기쁨 김주영 정이석

교회소식

해외아웃리치
신청: 3월 24일(주일)~4월 14일(주일)
방법: 본관 로비에 비치된 약정서 작성 후 제출 및 온라인 접수
문의: 해외선교팀장 최용호 집사
일정: 라오스팀- 7월 29일(월)~8월 3일(토)
태국팀- 7월 31일(수)~8월 6일(화)

새가족환영축제
일시: 4월 7일(주일) 오후 2시
장소: 별관 2층 새가족실
대상: 2023년 12월 ~ 2024년 2월 등록 교인

장애인주일
주제: “주 안에 우린 하나”
일정: 4월 14일(주일)
내용: 1)사랑부와 함께하는 예배(3부 예배 시)
2)사랑부 기도카드 나눔

태아부세미나
-주제: 생명!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일시: 4월 20일(토) 오전10시~오후1시
-장소: 교육실4(별관2층)
-대상: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 성도(부부 참여 가능)
-강사: 김성진 담임목사
-신청: 홈페이지
-문의: 김지연 부장집사

추천도서

예수님의 기도

유상섭/도서출판다함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는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보면서 그 배경을 궁금해 했고, 그 원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운 누가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비결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해들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그분의 기도의 모범과 가르침은 매우 흥미롭고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생활과 그 기도의 내용을 성경 본문의 문맥과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철저한 원문주해를 통해 분석하고 그 교훈을 우리의 기도생활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출판사서평)

새가족

장년	청년
김진순(87)	최연우(63)
김신애(84)	남유미(69)
유순자(63)	김철운(64)
김광욱(77)	노재영(90)
김성수(83)	김예원(92)
이경주(84)	오주석(66)
조성민(88)	이미화(67)
문신애(91)	신재웅(61)
정지혜(81)	신민우(94)
	최은정(78)
	김소현(98)
	정예은(01)
	김지현(89)
	윤원식(96)
	김태웅(85)
	전수현(95)
	이주희(79)

주요사역

- 4일(목)~5월 9일(목) 신약개관학교(6주)
- 6일(토) 종직자기도회
- 6일(토) 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 교육 및 문답(5주)
- 7일(주일) 새가족환영축제
- 8일(월) 동서울노회 고시
- 14일(주일) 장애인주일
- 15일(월)~16일(화) 동서울노회
- 20일(토) 태아부세미나
- 27일(토) 임직식
- 28일(주일) 농어촌아웃리치를 위한 교구총회

기도세미나 취재

기도,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



2024년 기도세미나가 지난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10분 열린교회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김성진 담임목사님의 설교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열흘 남짓 남겨둔 40일 주 바라봄 특별새벽기도회의 열기가 이어지더라도 한 듯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400여 명의 많은 성도가 참석하였습니다. 안내와 찬양 후 곧 시작된 세미나에서 김성진 담임목사님은 기도의 정의와 목적, 중요성 및 기도의 방법,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원리와 실재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기도는 히브리어 ‘팔랄’로서 ‘고개를 들다’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 고개를 의도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기독교에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입이 아닌 눈으로 드리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기도 한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나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가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맞춰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덧붙여 우리의 기도는 보통 나만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대화이기 쉬우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청구서일 뿐이라 일침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출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셨습니다. 보통은 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없는데 먼저 주파수를 맞춰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여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기도의 목적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온갖 오물이 있는 통에 생수를 붓는다고 맑은 물이 되지 않듯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욕심, 욕망, 두려움 등을 전부 들어내고 주님 능력 주시는 대로, 주님 힘주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채우기를 권면하셨습니다.

기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단’ 하면 되며, 기도는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닌 평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려는 준비가 필요한 가운데 기도는 형식보다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무엇일까, 기도응답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거나 사탄의 시험이 아님을 보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이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고, 기도는 그 방향에 힘을 주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시신 예수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삶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물리면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습관적 기도의 본으로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성공과 평안의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 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 가지 기도의 원리는 첫 번째 간청

하는 기도(눅11:5-13)로 성령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기도(눅18:1-8), 세 번째는 용서의 기도(눅18:9-14)입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 같지는 않은지, 말의 기도는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하였습니다. 또한 기도 없이는 우리 인생 어떤 것도 위협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담임목사님은 끝으로 일상 중에 식사하면서,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기도로 쉽게 “접근하자”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평소 기도가 중요함을 알면서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핑계로 기도를 마치 숙제처럼 여겼는데, 세미나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눈높이에 맞춰서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말씀해주셔서 (기도)숙제를 조금씩 풀어나갈 수 마음을 얻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세미나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다음의 다섯 가지입니다. ①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②기도 전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라. ③먼저 내 안의 것을 비우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④기도는 성경 말씀과 함께해야 한다. ⑤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라.

어쭙잡게 쌓인 기도 지식을 통째로 내다버리고, 내 자신을 전면개조 해야겠구나 깨달음 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

취재: 최희주 기자 ellyee@hanmail.net

주바라봄기도회고난주간 취재

나의 갈릴리(일상)로의 부르심



교회마당엔 어느새 목련이

두툼한 잠바를 입고 2월 20일부터 시작한 40일 특별새벽기도회의 대장정은 열린교회 앞마당의 하얀 목련이 꽃 몽우리가 막 터지기 시작하던 3월 30일에 마무리되었다. 기도회에 이어진 부활주일예 성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다. ‘함께 그리고 나란히’- 기도회 표제어처럼, 어린아이로부터 백향목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한 시간이었다. 매 새벽마다 각 교구와 기관들의 찬양이 있었고, 마가복음이 선포되었으며 기도가 이어졌다.

마가의 도전(제자도)

담임목사님은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여러 번 마가복음의 진술 방식을 짚어주었다. 마가는 감정을 절제하고 사실만을 냉철하게 진술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강력하게 도전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고난주간이 특별새벽기도회 기간과 겹쳐서 매년 있던 고난주간십자가사경회는 새벽기도회로 대체되어 시행되었다. 말씀은 강해되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일주일을 다루었다.

월요일에는 ‘갯세마네 동산의 아담’(막 14:32-42)으로, 제자의 조건은 ‘공감과 동참’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치열한 기도를 통해 에덴에서의 아담의 불순종을 갯세마네에서의 순종으로 바꾸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좇아 그분

의 뜻을 따라야 했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공감하지 못했다. 화요일에는 ‘배반의 입맞춤’(막 14:43-52)으로, 내부 고발자 가롯유다를 통해 긴급체포작전이 이루어지고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님은 붙잡히셨다. 우리 역시 예수님 자체가 아닌 그분이 주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배신이 가능하다!

수요일에는 ‘진실된 증인과 거짓 증인’(막 14:53-72)으로,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두 재판관을 다루었다. 예수님에 대한 산헤드린의 큰 재판관과 베드로를 상대로 한 여종의 작은 재판이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가 복잡하게 얽히자 다급해진 가야바가 직접 나서 예수님을 심문했고, 예수님은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신성모독죄로 재판에 회부된다. 반면 베드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여종의 물음에 거짓증언으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다.

목요일에는 ‘믿음의 침묵’(막 15:1-15)으로, 재판정의 거짓증거들 앞에서 침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참소에 침묵으로 대응하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금요일에는 ‘우리를 위해 당하신 수치와 능욕’(막 15:16-32)으로 마가는 조롱과 치욕을 당하면서도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토요일에는 ‘십자가의 능력’(막 15:33-47)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마가는 진술한다. 위로

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을 통해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던 이들의 변화, 죽음을 지키고 있던 가장 연약한 이들을 통한 복음의 선포이다.

나의 갈릴리(일상)로의 부르심

기도회 중 우리 교회 퓨리탄도서관에 비치된 마이클 호튼 교수의 <Ordinary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을 필자는 때마침 읽던 중이었다. 그의 책에 인용된 티시 해리슨 워렌의 글을 재인용한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근사하고 흥미로운 그러면서도 영적인 어떤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일상적인 것을 포용하고, 언제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독교적 삶을 건설하게 실천하라는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금번 기도회에서 필자의 귀에 가장 많이 들려진 단어는 ‘일상’에서의 순종이다. 가정, 직장, 사업장... 자신이 서있는 곳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라는 것, 십자가를 감상하지만 말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렁차게 필자의 귀를 때린 이유는 선포되는 말씀과 내 삶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본관 3층 로비에 성도들이 기도회 참석할 때마다 한 잎 한 잎 스티커를 붙여 만든 푸른 나무처럼, 우리 각자의 갈릴리에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취재: 신미숙 기자 pacific1009@naver.com

고등부겨울수련회(학생) 후기

사랑해요 주님, 우주만큼 땅만큼



김하진 고등부학년

 교회 겨울수련회 하기 한 달 전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일상적이지만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 버스와 지하철, 고민거리를 생각보다 쉽게 풀어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많았던 그분의 행하심을 느끼며 “와...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입 밖으로 튀어 나올 정도로 너무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수련회가 다가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일주일 전, 저는 그분의 행하심이 너무 위대했지만 제 삶이 풍요롭다고 느껴졌습니다. 한마디로 자만심과 근자감이었죠. 그리하여 하나님에게서 잠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게 고난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후에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유부단한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말씀을 듣고, 항상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제 깊은 곳 어딘가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학 진학 등 수많은 잡생각들에 둘러싸여 살았던 저를 그곳에서 주님이 끌어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제 비밀을 주님께서 이해

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게 느껴져서 설교를 듣는 중에도 울컥하였습니다.

그 후에 소그룹으로 모여 기도를 하는데, 말하고 싶지 않았던 제 비밀을 그 멤버들에게 말하며 같이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며 펄펄 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를 저답게 보여준 건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아 솔직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그 여운이 제게서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교우관계 같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음날 새벽 4시 30분에 새벽예배 특송을 불러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친구들과 아예 자질 않았습니다. 조금 자면 더 피곤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다음날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친구들은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새벽예배 때 졸았던 것

같습니다(저는 졸지 않은 거 같은데 친구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할수록 빠르게 지쳐갔습니다. 정신이 멍해지고 의욕이 안 생겼습니다. 오후 찬양연습할 때 솔직하게 말하면, 찬양을 부르며 박수칠 때 좋았습니다. 잘못하면 계단에서 떨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 상태에서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연습에 임했습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너무 힘이 안 났지만 주님이 관객이 되시고 제가 배우의 역할을 하듯 온 힘을 다해 박수치며 찬양했습니다(심지어 뛰었어요). 그런 후 내려와 예배드릴 때 좋았습니다. 정말 주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너무 후회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1년에 2번밖에 없는 수련회 중 하루를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 가서 뻘었습니다. 대략 12시간은 잔 거 같습니다.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임하니 받아들여지는 게 달랐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기도할 때 울컥하였습니다. 어제의 저에 대한 원망과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은혜를 한도 끝도 없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연약한 제게 새 삶을 주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뺏속에 깊이 박고 싶습니다. 제가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사랑해요 주님, 우주만큼 땅만큼. ☆

고등부겨울수련회(교사) 후기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윤정 고등부교사
jjunglove79@hanmail.net



 저는 고등부 새내기 교사이자, 고등학생 두 자녀의 학부모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사도 처음, 고등부 수련회도 처음입니다. 겨울수련회는 약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월 초 매일 밤 10시, 수련회를 위한 교사들의 릴레이 기도회로 시작하여 교사 금요기도회, 수요 교사·학부모 기도회, 40일 주바라봄기도회로 수련회를 마치는 날까지 기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의 신앙생활 중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여 정도 기도회로 준비하며 마음을 모으다 보니 하나님께서 고등부에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궁금했고 기대반, 설렘 반으로 수련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50여 명의 많은 학생이 모였고, 교사와 청년 스태프들까지 200명이 넘는 인원이 고등부 수련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고등부 찬양팀의 찬양을 시작으로 수련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올려드리는 순수한 믿음의 찬양의 고

백들은 감동이 되었고, 신나고 즐겁게 찬양을 부를 때에는 저도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학생들과 같이 기뻐 박수치며 목소리 높여 찬양을 불렀습니다.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로 3일 동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둘째 날 ‘십자가의 두 가지 열쇠, 제사와 속량’의 제목으로 선포된 말씀은 죄의 노예로 살아온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어린양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코로나 이후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던 저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해주었고 벽만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싶은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학생이 일어났고 기도하며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한다는 사실어요! 어른인 저에게도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데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더 많이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수련회 기간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만

이 소망이 되어주세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사랑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며 다짐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교사이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겠습니다. 또 묘목에서 거목으로 자라 푸르른 의의 나무가 되는 그 날까지 든든한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주겠습니다!

특히 교사가 아닌 학부모로서 크게 감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들의 넘치는 수고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의 섬김을 보시고 고등부에 큰 은혜를 부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회심을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즐겁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기 위해 활동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도구들을 직접 제작하고, 맛있는 간식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새벽까지 아이들과 밤을 지새우며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 부감 선생님 외 고등부 모든 선생님께 학부모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울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질서’의 첫 발을 내딛는 열린 고등부가 믿음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

새생명전도학교 후기

3주간의 뜻밖의 선물!



이수경 장년4교구
leesukyong75@gmail.com

연중 제일 바쁜 3월, 교회에서 하는 교육을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한 권사님의 새생명전도학교 심화반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권면을 듣고 처음에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평소에 직장 때문에 화요전도에 나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참에 3주간 전도를 하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보자는 마음이 생겼고, 온전히 다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결정했다.

역시나, 첫째 주는 몸살감기가 와서 오전 강의는 간신히 들었는데 오후 현장전도에는 도저히 나갈 수 없이 몸이 안 좋았다. 중간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함께 나갈 전도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냥 돌아오는 마음은 많이 무거웠다.

전도를 못한 죄송한 마음을 안고 한 주간 둘째 주 현장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다. 첫째 주에 못한 전도까지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고픈 마음이 있었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전도에 나갔다. 현장에 나가니 한 주간에 쌓인 피로가 온데간데없이 힘이 났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놓칠까 봐 열심히 뛰어다니며 전했다. 순식간에 준비한 건빵과 전도지가 없어진 것을 보고 더 많

이 준비해 올 걸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오는데 왜 그리 기쁨이 넘치던지... 너무나 오랜만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뜨거운 기쁨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왔고 전도할 수 있는 힘과 시간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밖에 나오지 않았다. 얼마 만에 느끼는 큰 기쁨인지 알 수 없었다.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다.

셋째 주는 현장전도 할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는데, 바쁜 직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게 되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전도할 생각에 설렘과 기대로 인하여 영혼에 촉촉한 기쁨의 생기를 부어 주시는 것 같았다.

13년 전, 둘째를 임신하여 입덧을 하면서 새생명전도학교를 하고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참여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셨다. 또한 30여 년 전, '사영리'를 들고 캠퍼스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던 추억과 감회가 다시 떠오르며 그때 나의 삶을 복음 전도자로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던 생각이 나면서 내 안에 깊숙이 숨어 있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짧은 날 전도지를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믿음이 없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할 기회를 틈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구령의 열정이 가득했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사랑에 대한

빛진 마음을 안고 복음 전함이 나의 사명인 양, 죽어가는 한 영혼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었나 싶다. 나의 온 시간과 에너지를 복음을 전하는 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가족 복음화가 최우선이었고 32년 가까이 가족구원은 나의 0순위에 해당하는 애달픈 고통의 기도제목이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그동안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32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너무나 강하고 완고했던 친정아버지가 작년 말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친정어머니가 오랜 세월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몇 년 전부터 믿음이 생기셔서 예배 드림이 평안과 기쁨이 되셨고, 시어머니도 교회를 나가신 지 20년 만에 작년에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

나에게 가족구원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낙숫물에 어느 순간 큰 암석이 찍히고 뚫어지는 것과 같은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가족구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달려온 시간이었는데 하나 둘 맺히는 열매를 보면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새생명전도학교를 할 수 있었기에 올해의 전도학교는 더욱 값지고, 복음전도로 인한 설렘과 기대로 소망과 기쁨이 넘쳤던, 뜻밖의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다. ☆

경주자(교역자칼럼)2

올해는 어떤 해가 될까요?



권경철 장년4교구담담목사
cyberkcc@gmail.com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예배 규제가 계속되고 있었던 2021년 겨울,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생후 6개월 된 딸을 데리고 열린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당시 열린교회에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왔기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은 어떤 분들이 열린교회에 다니시는지를 잘 몰랐고, 교인들 중에서도 저나 제 가족을 아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교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던 막연한 시간이었지만, 학업과 사역으로 쉼 없이 달려온 저로서는 그만큼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재충전을 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재충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후에 활발한 사역도 없었을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간의 기도와 준비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고, 2022년 새해가 밝기 무섭게, 저에게는 열린교회의 전도사역을 새단장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도와 선교 훈련은 받았지만 실제로 전도사역을 진두지휘해본 적이 없고 전도 경험이 부족했던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 전도사역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선불리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도사역을 총괄한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에 결과와는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혼자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많은 헌신된 전도대원이 매주 함

께한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족하나마 열심을 다해 솔선수범하며 섬겼더니, 전도사역은 날로 확장되고 성장하게 되었고, 한 해가 지난 후 통계를 내보았더니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역시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에 순종으로 받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은 지난 2023년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한계와 좌절을 경험했던 때인 동시에, 가정적으로나 사역적으로는 큰 확장을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첫째 딸이 영아부에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습은 물론이고, 한창 현장 전도를 하던 중에 응급 분만 상황이 되어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가 둘째 딸을 출산했던 일,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기존에 하던 전도사역 및 사형수를 대상으로 한 교정서신 사역, 안양교도소와 샘병원, 미라클요양병원 대면사역이 재개되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백향목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조직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어르신들의 신앙에 도전을 드렸던 그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징이요 하나님이 열린교회에 저를 두신 이유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손이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교회의 세대교체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신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2024년이 되어 저는 장년 4교구에서 새로

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각각 유아부와 영아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해가 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나날이 달라지는 사역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지상명령과 신앙계승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에 두고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56편3-4절)

기도세미나 후기

하나님과 대화 채널 맞추기



김수진 장년3교구
sensejini@naver.com

40일간의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많은 성도가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시점에, 담임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는 기도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전부터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나에게 그날의 말씀은 또 다른 깨달음으로 친절히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이란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여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입이 아닌 고개를 의도적으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대화의 채널을 맞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그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 마음 속에는 항상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일상 안에서 늘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고 수시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기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

기도세미나 후기

동생과 함께한 세미나



최영임 장년6교구
vinkh@naver.com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2022년 5월에 열린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은혜 안으로 끌어 주셨습니다. 성장반과 구역개관학교, 기도학교 및 전도학교를 참석하면서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처럼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주일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였고, 섭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거슬러 살았던 잘못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면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나의 권위적인 생각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오랜만에 영적인 안식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저에게 또 다시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막냇동생이 유방암이라는

주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을 맞춰두면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빨리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가다가도, 운전 중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내 옆에 계신 아버지에게 얘기하듯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던 느헤미야처럼 저도 그렇게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길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방향은 성경말씀이고, 추진력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힘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한 구절이 가슴에 닿아 깨달아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맞춰지게 하소서. 평안할 때에도 은혜의 때에도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세미나를 통해 얻은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 하루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가 매일 매일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더욱 건고한 교회로 세워져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교회 기도팀(릴레이기도팀, 수요일침묵기도팀)과 구역식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40일 새벽기도, <주 바라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었기에 40일 새벽기도가 자신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광고를 들으면서 한번 해보아겠다는 생각을 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고, 매일 새벽마다 동생의 영혼과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이어지는 담임목사님의 설교 안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아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으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고, 바디매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의 암 또한 함께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생은 6차 항암치료의 과정을 끝내고 2월 27일에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시 교회 기도팀들과 구역식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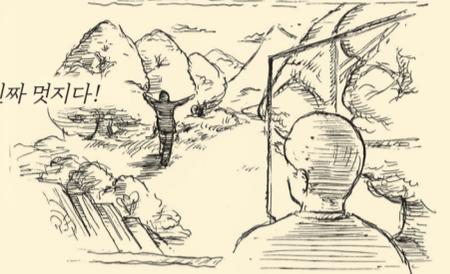
아침 일찍 잡혀있던 수술 때문에 수술 당일은 새벽기도에 참석했다가 설교 말씀만 듣고 병원으로 가야했습니다. 예배당을 나가면서 입구에 계신 전도사님께 동생 수술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다시 기도 부탁을 하고 병원으로 향했

곰곰이 생각

편히 잘 수 있는 사람, 준비한 사람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어느 숲속에서의 일입니다. 아침을 맞이해보니 온 숲이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숲을 만나는 '나의 물결'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나 자신도 아름다운 것은 아니니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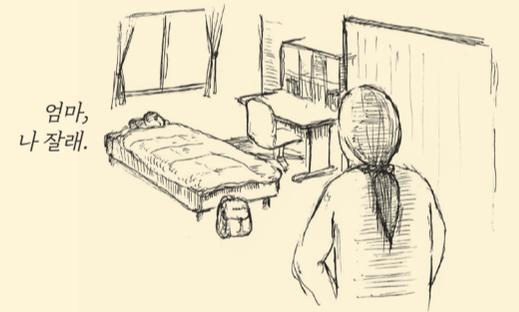


와우! 진짜 멋지다!

세수도 안 하고 어딜 나가?

일생을 마치는 날, 가고 싶은 나라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 나라의 아침이 아름다울수록, 그 나라를 만나는 '나의 정체성'이 중요할 겁니다.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아침을 준비한 사람이 평온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그 나라를 준비한 사람만이 그 나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나 잘래.

다 마쳤나 보구나. 그래. 얼른 자라.

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날 목사님께서 전체 기도제목으로, 특별히 암환자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동생의 수술은 잘 되었고, 지금은 퇴원하여 계속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수술을 끝내고 나온 동생과 동생 곁을 지켰던 조카에게 열린교회 온 성도가 동생의 수술을 위해 함께 기도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동생과 조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 했고, 그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는 동생이었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침 이어진 이번 기도세미나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열심히 써내려가는 동생을 보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있지만 동생 또한 결혼 전에 교회를 다녔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에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아픔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0일 특별새벽기도를 통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행복한 사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만난 하나님

고은별 장년3교구
eunbyeol2268@naver.com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초등부에서는 매년 전국 성경고시대회와 율동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성경공부와 말씀 암송, 율동 연습을 하기 위해 교회에 오랜 시간 머물렀던 기억이 참 행복하게 남아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탈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중간중간 나태해지고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항상 제 곁에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타 지역으로 대학교를 다니게 되어 기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주일성수를 지키지 못하고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 선배를 통해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첫 발령지에서 근무하면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교직 문화와 현실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면서 직장에 대한 불평불만이 쌓이던 어느 날, 새벽마다 꾸준히 새벽기도를 가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나도 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엄마와 새벽기도를 다니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만났던 기억이 지금도 저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로 나아가도록 전인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에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 잠깐 교회 다닌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후에 입대할 예정이었는데 저는 그가 군대에 가서 지속해서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친구는 강원도로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그의 선임이 선교사님 아들이었고 그분이 제 친구를 교회에 같이 가자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된 교회의 예배에서 친구는 깊은 은혜를 경험했고, 이후에 군중병으로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약한 기도를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결혼하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기가 잘 때마다 기도해주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2021년도에 저는 안양으로 발령받고 얼마 후에 출산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인생은 별 어려움 없이 제가 계획하고 바라던 대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육아도 두려움 없이 철저한 계획과 부지런한 실행 하에서 삶의 모든 영역을 제가 통제하며 생활했습니다. 자신감 넘쳤던 저는 출산 후 이틀 후에 퇴원하여 몸조리 기간도 생각하고 바로 '셀프 육아'로 돌입하였습니다. 수유 시간과 아기의 수면시간도 내가 세심하게 시간표를 짜서 진행했고 아기도 잘 따라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무난한 삶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고의 육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통증을 동반하면서 왼쪽 팔이 저리고 그 아픔은 손끝까지 느껴졌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종합병원, 통증의학과 등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은 전부 가보았지만 모든 의사 소견은 "별 이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과 불안에 휩싸여 6개월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병원에서 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자책하며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처인 학교에서 어떤 학부모가 저에게 연락하기를 원한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출산 전에 가르쳤던 제자의 어머니였는데 그 제자의 학교생활에 대해 전(前) 담임이었던 저와 의논하고 싶어 연락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와 대화하는 중에 저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저에게 성경 말씀을 보내주시고 열린교회 예배를 권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2022년 11월에 혼자서 열린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 내용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였고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린교회에 등록 후, 새가족교육, 성장반이라는 정규 교육과정에 참석하면서 많은 진리의 빛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출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에 복종케 하심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팔의 통증은 낫지 않았지만, 3월이 되어 학교에 복직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육아를 겸하는 생활을 하다가 서너 달 지났을 때 어느 순간에 팔의 통증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삶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설교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열린교회에서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진심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진리로 키우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고 기도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알아갈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하며 제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 휴직장로** 김남근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 부목사** 박재현 김동기 박철웅 이성미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김태영 손하람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김진산 최영광
- 전도사** 광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이월순 김민성 김진하 이두호 조일권
김다영
- 교육전도사** 이해선 김태훈 권세원

파송선교사

- A국:** 2 units / **B국:** 1 unit / **C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태국:** 김요한 & 이진
-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항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시편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서오시면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이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